

보바스기념병원 호스피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10-2
TEL : 031) 785-0303~4 FAX : 031) 785-0301
홈페이지 : <http://www.ibobath.com>
E-mail : khr6644@hanmail.net

기관 및 호스피스 설립배경

2002년 5월 문을 연 보바스 기념병원은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 하였던 보바스 부부의 뜻을 기리며 설립된 노인전문 치료병원이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어진 병원은 2층에는 중환자실과 신경과병동, 3층은 호스피스병동과 내과병동, 4층은 재활의학과병동으로 총 158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되며, 아름다운 도심의 야경이 창문 가득히 펼쳐지는 전경이 있고,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스피스 병동

3층에 위치한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설립계획 때 부터 준비되어, 병원 개원과 함께 입원환자를 돌볼 수 있었으며 입원실 8병상(4인용 2실)과 임종실, 휴게실, 기도실, 가족상담실로 구성되어 있고 간호사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타 병동과는 독립된 분위기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간병인 제도로 운영되어 보호자의 육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울 수 있으며, 타 병실과는 달리 보호자가 환자를 직접 간호하길 원하면 24시간 환자곁에 있도록 보호자 침대도 제공하고 있다.

목적 및 철학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에게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인생의 마지막에 평온한 심을 찾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드리도록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도와주는데 있다.

운영형태

병동형 호스피스 : 8병상의 독립된 호스피스 병동
산재형 호스피스 : 각 병동별 호스피스 환자 산재
가정 호스피스 : 가정 전문간호사 및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활동

- 대상지역 : 성남(분당)전역, 용인(수지), 수원시 일부, 광주시일부, 서울(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일부지역

호스피스 연구 모임

의사,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가정 전문간호사, 성직자, 사회사업가, 음악치료사, 영양사, 자원봉사자, 간병인 등을 구성원으로 주1회 모임을 갖고 호스피스 관련 교육 및 연구활동, 환자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완화학회, 학술



대회, 해외연수 등 호스피스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봉사자 모임 및 활동

호스피스 환자를 위해 마련된 전문 음악가들의 공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두드러지진 않으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이 환자를 위한 기도해주기, 말 벗 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사업과에서 년 2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계획

- 사별 가족모임 : 가정 전문간호사가 필요시 사별 가족 방문을 하여 지지해 드리고 있으나 사별가족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하루속히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후원회 : 개인 및 단체 후원회를 활성화하여 호스피스와 관련된 다양한 후원을 할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

130-7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Tel : (02) 958-2234

홈페이지 : //www.baoro.com

E-mail : iskim@hanmail.net

1. 기관 및 호스피스 설립배경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8년 3월 호스피스과가 신설되어 산재형(散在型)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최근에 연간 200여명 말기 암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경제적, 영적고통을 완화·지지함으로써 환자가 질병의 과정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평화로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팀 접근을 통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목적 및 철학

목적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념을 근간으로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하여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의 증상과 고통을 총체적으로 돌봄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죽음을 맞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사별가족과 친지들을 돕고 지지해 줌으로써 상실과 슬픔의 체험을 통하여 가족들이 일상의 복귀와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3. 호스피스과 연혁

1988. 3 호스피스과 신설, 산재형 호스피스 활동 시작

- 1989. 5 호스피스 팀 위원회의 및 자원봉사자 월례모임
- 1993. 9 호스피스 전용병실 10병상을 내과계 병동내 운영
- 1995. 4 호스피스 사별가족 모임 실시
- 1997. 2 12병상(1인실 2, 5인실 2)의 호스피스 병동 개설
 - 3 가정호스피스 부분적으로 실시
- 1998. 10 호스피스 병동 폐쇄하고 산재형 호스피스로 환원(전용 병실 및 임종실 운영 계속)
- 1999. 4 호스피스과가 병원장 직속 사명구현팀에 소속 (사명구현팀 : 호스피스·원목실·사회사업과·가정간호팀)
 - 7 호스피스교육연구소, 전문간호교육과정 생 임상실습 실시
 - 10 본원 '사랑의나눔 바자회'에서 '먹거리장터' 주관
 - 11 제9차 호스피스 교육 실시(125명 수료)
- 2000. 3 가톨릭 평화·나눔 공동체 1년간 위탁 교육 실시
 - 4 사별가족 모임 및 작은 음악회 개최
 - 5 호스피스 조정자, 유럽 호스피스기관 견학
- 2001. 3 제10차 호스피스 교육 실시(198명 수료)
 - 7 호스피스협회 주관 '호주 호스피스 연수'에 봉사자 2명 참가
 - 9 본원 '사랑의나눔 음식바자회'에서 '먹거리장터' 주관
- 2002. 3 제11차 호스피스 교육 실시(68명 수료)
 - 5 자원봉사자 교육 '약손요법, 음악요법,

미술요법' 강좌 실시

11 자원봉사자 1박2일 워크샵 및 갈바리호 스피스기관 견학

11 제9회 사별가족모임 실시

2003. 3 제12차 호스피스 교육 실시

4. 운영 및 병원지원

5인실 병실 2개와 1개 임종실이 호스피스 환자에게 입실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으며, 팀요원으로 호스피스 조정자, 소화기종양내과 의사, 호스피스간호사, 마취과 의사, 원목자, 성직자, 사회사업가, 호스피스 가정간호사, 정신과 의사, 영양사와 26명의 자원봉사자가 팀으로 일평균 10~12명의 입원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사회사업과서 경제적 부담이 있는 환자의 의료비 보조를 하고 있다.

5. 활동 및 프로그램



사별가족 모임

본원은 호스피스과가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약 1800명의 환자를 돌보았으며, 그중 120명 이상의 환자가 병원에서 임종하였다. 산재형 호스피스의 특성을 살려서 기관의 이념과 지역적 요구에 많은 호스피스 환자와 그의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1) 입원 환자 방문

입원한 호스피스 환자와 그의 가족을 호스피스 팀이 2회/일 병실을 회진하고 방문하여 지속적이며 총체적인 간호와 상담 및 가족지지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2) 퇴원 후 가정 방문

환자가 퇴원한 후 호스피스간호사, 가정간호사,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소속 본당과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하여 환자를 심리적 영적으로 지지하며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다.

3) 가족교육 및 지지모임

월1회 호스피스 가족 그룹모임을 통해 질병의 진행과정에 따른 교육 및 상담, 질의응답으로 가족들의 궁금증, 걱정, 불안을 완화시키고 사별에 대한 준비를 시킨다.

4)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실시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해 3월 3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 및 지역사회의 호스피스 교육 요청에 응하며 신규간호사의 교육에 참여한다.

5) 사별가족 모임 및 행사

사별 후 유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년 2회 실시하여 남은 가족들이 사별의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이를 통해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6) 호스피스팀 모임 및 자원봉사자 교육과 월례모임

호스피스팀의 정기적인 교육과 증례발표를 통해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꾀하고 자원봉사자의 월례모임을 통한 교육과 정보교환 및 환자와 가족이 지닌 문제들을 토의하고 팀원을 격려한다.